SEOUL ANIMAL FILM FESTIVAL
OCT. 19-23, 2023

서울동물영화제
SAFF

동물권행동
카라

제6회 서울동물영화제
6th SAFF

일시:

10. 19. 목—10. 23. 월
5일간

장소:

메가박스 홍대 1·2·3관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47
온라인 상영관 퍼플레이
purplay.co.kr/saff2023

극장상영 티켓:

일반 티켓 7,000원
동물의 집 후원 티켓 10,000원

온라인 티켓:

무료—3,000원

상영작:

21개국 51편

주최:

동물권행동 카라

후원:

서울특별시, 영화진흥위원회

캐치 프레이즈:

살아있는 모든 것, 다 행복하라
May Whatever LivingBeings Be Joyful

슬로건:

동물의 집은 어디인가
Where the Animals Are

saff.kr

본 책자는 10월 4일자로 출간되었습니다.
이후의 변동사항은 영화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동물영화제가 6회를 맞이합니다.

2023년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6회 서울동물영화제가 열립니다. 2018년 카라동물영화제로 시작하여 2022년 서울동물영화제로 명칭을 바꾸고 2023년 6회 영화제를 맞이합니다.

서울동물영화제는 전 세계 각 지역의 동물권 이슈와 비인간 존재를 포착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는 영화를 소개하고, 인간동물-비인간 동물 간 관계를 성찰하고 국내 동물권 현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나아가 동물이 안전한 환경에서 적절한 복지를 제공 받았는지를 살피고, 영화제 운영에서도 동물, 환경, 지구를 해치지 않는 방식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서울동물영화제는 시민들의 생명감수성을 함양하는 영화 축제로 앞으로 더욱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동물의 집은 어디인가

자본 중심의 개발, 야생동물 거래, 육식 위주의 식단. 인간 중심적 사회는 환경과 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무시무시한 범위의 기후 위기와 팬데믹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 동물은 비인간 존재들과 공존하는 대안적 생활 방식을 모색하기는커녕 위기를 동물의 탓으로 돌리고 더 큰 규모로 동물을 죽음과 난민의 상황으로 몰아넣습니다. 참담하게도 위기는 성찰의 기회로 작동하지 않고 더 큰 개발의 논리를 강화하는 데 이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들은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고 저항합니다. 열악한 동물원과 번식장에서 탈출하여 스스로 '집'을 찾는 여행을 감행하고, 해수가 들어오지 않는 갯벌에서도 생명을 이어가며, 파괴된 서식지 곳곳에서 숨죽이고 있다가 인간이 오지 않는 밤에 집을 되찾는 것을 꿈꾸기도 합니다.

6회 서울동물영화제는 묻습니다. 이 동물들의 집은, 동물들이 있어야 할 곳은, 동물들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인간은 집을 잃고 떠돌고 탈출하고 난민이 된 동물들에게 포획과 죽음 외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습니까?

인사말
INTRODUCTORY MESSAGE

2023년 서울동물영화제(SAFF)의
키워드는 '동물의 집은 어디인가'입니다.

동물들이 사는 집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야생의 숲은 개발의 손길을
피하지 못하고 바닷속 생명들도
미세플라스틱의 침공에 이어 핵폐기수
유입이라는 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농장동물, 동물원, 반려동물
번식장, 펫샵 등의 열악한 환경도 개선의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구를 함께
나누어 쓰고 있는 우리 인류보다 수천만
배 많은 생명 개체의 집을 파괴하고도
인간들은 아무런 책임감과 반성이 없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처음 열리는 영화제를 통해
우리의 고민과 걱정 그리고 책임을 함께
나누는 연대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화제를 위해 애써주시는 애니멀 프렌즈 이기우님, 실무 스태프들과
프로그래머, 늘 좋은 포스터와 디자인으로 함께 해주시는 윤에지
작가님과 FNT 이재민 실장님, 자원활동가, 협력사와 후원사들 그리고
함께 애써주시는 카라 활동가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영화제 개최에 큰 힘을 실어주시는 서울시와 영화진흥위원회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구는 하나하나 기적과도 같은 다양한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인간 동물인 우리도 이곳에서 땅을 디디고 다른 생명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각자의 서식지와 환경, 그들의 '집'에서 살아갑니다. '집'은 경이로운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러나 인간동물들은 더 버젓한 집에서 살기 위해 높은 건물을 짓고 더 많은 재화를 얻기 위해 누군가 다른 존재의 집이며 삶을 지탱해 주던 '집'을 파괴하고 개발합니다. 버려진 동물들이 안락사를 대기하는 보호소, 펫숍의 유리 쇼윈도, 돼지 스톨과 베터리 케이지가 9단까지 쌓아 올려진 축산공장, 시멘트 바닥과 철창뿐인 야생동물 사육실과 같은 기괴한 동물의 집도 만들어 냈습니다.

6회 서울동물영화제에서는 인간이 파괴하거나 만들거나 지켜주어야 할 '동물의 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슬로건의 의미를 담은 21개국 51편의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6회 서울동물영화제 디자인

FESTIVAL IDENTITY

“외뿔고래, 북극곰, 바다코끼리, 순록, 펭귄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빙하를 터전 삼아 살아가는 동물들이 지구 위의 마지막 얼음 조각 위에 간신히 모여 까치발을 들고 서 있습니다. 높아진 수면에 반쯤 몸을 걸친 채 무심히 빛나는 커다란 해는, 바다 밑으로 저무는 중일까요? 혹은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중일까요? 동물들은 곧 캄캄한 밤을 마주하게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아침을 시작하게 될까요?

우리가 너무 멀리 와버려서 지구의 시간을 되돌리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없습니다. 얼어붙은 땅 위로 고개를 내민 북극황새풀처럼,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의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 윤예지·이재민

아트디렉션·그래픽디자인:
studio fnt
이재민, 정다솜

일러스트레이션:
윤예지

트레일러 디자인:
Delpic design studio
김기태, 이본, 신유미

6th SEOUL ANIMAL FILM FESTIVAL
OCTOBER 19—23, 2023
서울동물영화제
SAFF

극장 상영 안내
THEATRICAL SCREENING INFORMATION

상영관

메가박스 홍대 1관(M1), 2관(M2), 3관(M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양화로 147, 7–12층(동교동, 아일렉스)
(2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홍대입구역 1번 출구)
동물, 자연, 지구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주차장 이용 시 1시간 무료, 이후 10분 당 1,000원 부과)

온라인 예매

예매 기간: 2023년 10월 5일(목) 14:00부터 해당 상영 시작 10분 전까지

티켓 가격: 일반 티켓 7,000원 / 후원 티켓 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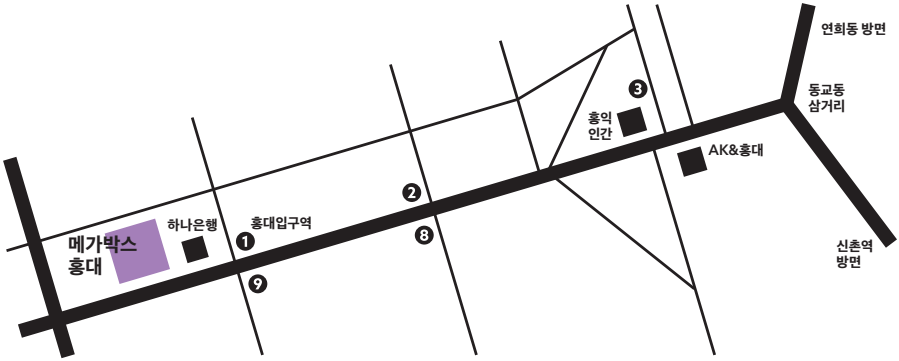
예매 방법: 서울동물영화제 홈페이지(saff.kr)에서 개인정보 등록 후,
예매한 영화당 1회 4매까지 예매 가능(중복 예매 가능)

결제 수단: 신용·체크카드
휴대폰 결제 불가, 문화/도서 상품권 등의 상품권 사용 불가

수령 방법: 모바일 티켓으로 바로 입장
지류 티켓 발권 절차 없이, 모바일 티켓 제시 후 입장
모바일 티켓 캡쳐 이미지로는 입장 불가

종이 티켓 발권을 원하는 경우:
영화제 기간 메가박스 홍대 현장 매표소에서 예매번호(SMS, 예매확인증, 예매내역 페이지) 제시 후 발권
상영 시작 후 15분까지 발권 가능

유의사항: 온라인 예매의 취소 및 환불은 해당 상영 시작 30분 전까지 가능



현장 예매

예매 장소: 메가박스 홍대 7층 영화제 전용 티켓부스

티켓 가격: 일반 티켓 7,000원 / 후원 티켓 10,000원

운영 기간: 2023년 10월 20일(금)–23일(월)
첫 상영 시작 30분 전부터 마지막 상영 시작 15분 후까지

결제 수단: 현금, 신용카드, 티켓 교환권
(문화/도서상품권 등의 상품권 사용 불가)

유의 사항:

온라인 티켓 예매자는 당일 현장매표소 방문없이 모바일 티켓으로 바로 입장
온라인 예매 티켓 발권 시 예매번호(SMS, 예매확인증, 예매 내역) 반드시 지참

상영관 운영 안내

상영관은 온라인 티켓 또는 종이 티켓 소지자에 한해 입장이 가능합니다.
정시 상영으로 상영 시간에 맞추어 입장 부탁드립니다.
쾌적한 관람을 위하여 상영관 내 음료(생수, 무알코올 음료) 외 취식이 제한됩니다.
영화 상영 중 사진(휴대폰, 카메라 등) 및 동영상 촬영은 불가합니다.
영화 상영 중 자리 이동 및 상영관 재입장은 삼가 바랍니다.
상영작 관람등급에 따라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영 안내
ONLINE SCREENING INFORMATION

온라인 상영관

퍼플레이
purplay.co.kr/saff2023

이용 안내

티켓 판매 기간: 2023년 10월 19일(목) 19:00–10월 23일(월) 23:59

티켓 가격: 무료–3,000원

접속 기기: PC 이용 권장(윈도우 또는 안드로이드 기반 운영체제에 최적화)
관람료 결제 후 24시간 이내에만 관람 가능
티켓 결제는 10월 23일(월) 23시 59분까지 가능
10월 23일(월) 23:59에 결제했을 경우 10월 24일(화) 23:59까지 관람 가능

이용 방법

퍼플레이(purplay.co.kr) 회원가입 후 '서울동물영화제 온라인 상영관 (purplay.co.kr/saff2023)' 페이지로 접속
작품별 개별 결제 후 관람 가능
국내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해외 작품에는 한글 자막만 제공

운영 안내

구매자 본인만 관람 가능합니다.
모든 작품에는 워터마크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작품별 티켓 판매수량이 제한되어 있어, 매진 시 관람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관람 중 불법 다운로드, 화면 캡처 및 배포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복제 및 상업적 이용을 금지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온라인 영화관람 문화를 함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퍼플레이 고객센터 0507-1460-8122(영화제 기간 내 10:00–17:00)

상영시간표

SCREENING SCHEDULE

개막일 OPENING DAY 10. 19. 목요일 THURSDAY							
상영관	상영시간	작품명	상영 코드	자막	상영 등급	프로그램 이벤트	페이지
1관 M1	19:30	개막식 OPENING CEREMONY					
		니카를 찾아서 SEARCHING FOR NIKA	101		G		P18

등급	G 전체관람가	12 12세 이상 관람가	15 15세 이상 관람가
프로그램 이벤트	GV 관객과의 대화	RV Remote GV(감독 Q&A 영상)	ST SAFF 토크

saff.kr

위의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동사항은 영화제 홈페이지(saff.kr)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작품을 제외한 모든 작품에는 한글 자막이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 장편 작품에만 영어 자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Korean subtitles are not provided for Korean films but are available for all other films. English subtitles are exclusively available for Korean feature films.

10. 20. 금요일 FRIDAY

상영관	상영시간	작품명	상영 코드	자막	상영 등급	프로그램 이벤트	페이지
1관 M1	17:00	쇼잉 업 SHOWING UP	201		12		P61
	19:40	니카를 찾아서 SEARCHING FOR NIKA	406		G	ST	P29
3관 M3	18:00	타마강의 고양이와 사람들 TAMANEKO, TAMABITO	202		G		P38
	20:00	피아페 PIAFFE	204		12		P27

10. 21. 토요일 SATURDAY

상영관	상영시간	작품명	상영 코드	자막	상영 등급	프로그램 이벤트	페이지
1관 M1	12:10	수라 SURA: A LOVE SONG	301	E	G	GV	P30
	15:00	라우디 걸 ROWDY GIRL	307		12	GV	P28
	17:20	잡식가족의 딜레마 AN OMNIVOROUS FAMILY'S DILEMMA	304	E	G	ST	P36
	20:40	참나무 숲 동물들 HEART OF OAK	310		G		P26
2관 M2	12:30	인간의 마음 THE HUMAN MIND	302	E	G	GV	P32
	15:20	말이야 바른 말이지 CITIZEN PANE	305	E	G	GV	P25
	17:30	갓랜드 GODLAND	308		12		P60
	20:20	곰 + 도나 스프링—용감한 여정 + 적응 BEAR + COURAGE IN LIFE AND POLITICS— THE DONA SPRING STORY + ADJUSTING	311		15		P40 P37 P39
3관 M3	12:30	SAFF 단편경쟁 1 SAFF COMPETITION 1	303		15		P44
	14:20	SAFF 단편경쟁 2 SAFF COMPETITION 2	306		G	GV	P49
	17:50	SAFF 단편경쟁 3 SAFF COMPETITION 3	309		12	GV	P53
	20:20	주포비아 ZOOPHOBIA	312		G	RV	P57

10. 22. 일요일 SUNDAY

상영관	상영시간	작품명	상영 코드	자막	상영 등급	프로그램 이벤트	페이지
1관 M1	12:00	**쇼잉 업** SHOWING UP	410		12	ST	P61
	15:10	**정원 영화들 + 장소에 존재하기 — 마거릿 테이트의 초상** GARDEN PIECES + BEING IN A PLACE — A PORTRAIT OF MARGARET TAIT	404		12	ST	P66 P63
	17:20	**타마강의 고양이와 사람들** TAMANEKO, TAMABITO	407		G		P38
	19:30	**추락의 해부** ANATOMY OF A FALL	401		12		P59
2관 M2	12:10	**주포비아** ZOOPHOBIA	402		G		P57
	14:30	**포커스 포럼** FOCUS FORUM	405				P69
	16:40	**쟁점 포럼** POLEMICS FORUM	408				P68
	19:20	**라이트 니즈** LIGHT NEEDS	409		G	RV ST	P64
3관 M3	12:30	**착취의 종말** THE END OF MEDICINE	403		G		P31
	14:10	**갓랜드** GODLAND	505		12		P60
	17:00	**잠들지 않는 새들 + 트리라인** SLEEPLESS BIRDS + TREELINE	411		12		P65 P67
	18:50	**피아페** PIAFFE	412		12		P27

폐막일 CLOSING DAY 10. 23. 월요일 MONDAY

상영관	상영시간	작품명	상영 코드	자막	상영 등급	프로그램 이벤트	페이지
1관 M1	17:20	참나무 숲 동물들 HEART OF OAK	501		G		P26
	19:30	폐막식 CLOSING CEREMONY					
		그만먹개(犬) 캠페인 2023 FRIENDS, NOT FOODS CAMPAIGN 2023	503		G		P20
3관 M3	17:30	라우디 걸 ROWDY GIRL	502		12		P28
	19:30	착취의 종말 THE END OF MEDICINE	203		G		P31

애니멀 프렌즈
THE ANIMAL FRIENDS

배우 이기우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을 느끼고, 동물이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으로 인식되는 세상이 하루빨리 만들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서울동물영화제의 '애니멀 프렌즈'를 맡게 되었습니다. 동물을 좋아하는 마음을 넘어서 함께 살아가는 생명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더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드라마

2023 MBC 〈밤에 피는 꽃〉
2023 JTBC 〈기적의 형제〉
2023 JTBC 〈대행사〉
2022 JTBC 〈나의 해방일지〉
2022 TVN 〈별똥별〉
2021 WAVVE 〈복제인간〉
2020 JTBC 〈18어게인〉

영화

2023 〈폭로〉
2017 〈여교사〉
2016 〈시간이탈자〉
2014 〈추적자〉
2013 〈콩나물〉
2011 〈우리 이웃의 범죄〉

방송

2023 TVN 〈2억9천 : 결혼전쟁〉
2022 KBS2 〈다큐ON〉
2020 KBS2 〈땅만 빌리지〉

SAFF 단편 경쟁

SAFF 단편 경쟁 시상내역

작품상 1편 한화 500만원의 상금
관객상 1편 한화 200만원의 상금

본선 심사위원 임순례

〈와이키키 브라더스〉(2001),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2008), 〈리틀 포레스트〉(2018), 〈교섭〉(2023) 등을 연출한 영화감독.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동물권행동 카라의 대표를 역임하며 카라가 탄탄한 동물보호단체로 성장하는 데 일조하였으며 서울동물영화제의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본선 심사위원 임오정

단편영화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여성 주인공에 대한 관계의 이야기를 펼쳐왔다. 첫 장편 〈지옥만세〉(2023)에는 주류사회 변방의 존재들에 대한 응원과 애정을 담았다. 동물과 인간의 건강한 공존을 위한 일상과 일상 너머의 일들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왔고, 가족으로 지내는 고양이들에게 삶에 대한 태도와 의지를 배우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본선 심사위원 손수현

〈마더 인 로〉(2019), 〈힘찬이는 자라서〉(2022), 〈코끼리 뒷다리 더듬기〉(2022) 등의 작품에 출연하고, 〈프리랜서〉(2020), 〈선풍기를 고치는 방법〉(2020)을 연출했다. 2017년부터 비건을 지향했으며 얼마지나지 않아 비거니즘 에세이 『밥을 먹다가 생각이 났어』(공저, 2022)를 썼다. 어느덧 넷이 된 고양이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있다.

예선 심사위원

황미요조(서울동물영화제 프로그래머)
임유빈(서울동물영화제 프로그램팀)

개막작
OPENING FILM

니카를 찾아서
SEARCHING FOR NIKA

- 스타니슬라프 카프랄로프
- 스페인, 우크라이나
- 2023
- 77분
- 다큐멘터리

M1: 10. 19. THU 19:30
M1: 10. 20. FRI 19:40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가족의 반려견 니카가 실종된다. 니카를 찾아 키이우로 돌아가는 길에 전쟁 피해를 당한 동물을 구조하는 활동가들을 만난다.

2022년 2월, 폴란드 국경 인근의 산악지대에서 휴가를 보내던 감독은 전쟁을 피해 폴란드로 넘어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는 그의 부모와 그에게 형제와도 같은 반려견 니카가 살고 있다. 포화로 휩싸인 피난길 도중에 겁에 질린 니카는 차에서 뛰쳐 나가고 가족들은 니카와 헤어진다. 우크라이나군이 키이우를 탈환하고서야 니카를 찾아 키이우에 들어갈 수 있던 감독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전쟁 뒤에 남겨진 동물의 구조를 위해 헌신하는 활동가들을 만난다. 쉽게 닿을 수 없는 니카를 향한 여정은 감독과 관객 모두를 동물구조 활동가들이 보여주는 헌신과 의지의 실천으로 인도한다. 영화는 전쟁이라는 비상상황이자 예외상태 속에서 동물에 대한 인간의 보편적 책임을 무겁게 보여준다. 전쟁이 인간동물, 비인간동물 모두에게 예외상태이자 비상상황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 영화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 사회의 범주 안에서 인간이 마련한 자리에 위치한 비인간동물이란 그 자체로 예외상태의 존재인 것은 아닌가라는 깊은 고민으로 관객을 이끈다.

스타니슬라프 카프랄로프
Stanislav KAPRALOV
우크라이나 출생 감독이자 작가. 장편 데뷔작 〈실종: 사라진 사람들〉(2020)과 단편영화 〈I Am Illusion〉(2018), 〈Sui Caedere〉(2017)을 만들었다.

폐막작
CLOSING FIL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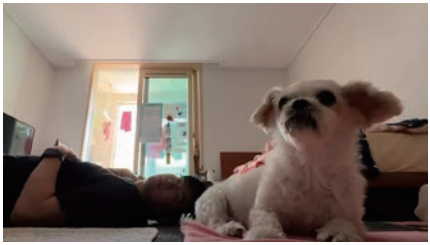
그만먹개(犬) 캠페인 2023
FRIENDS, NOT FOODS CAMPAIGN 2023

- 조현철, 장민승, 박새연, 박성광, 이송희일
- 한국
- 2023
- 39분
- 극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 월드 프리미어

M1: 10. 23. MON 19:30

꽃밭에 나란히 앉아 인생의 짝꿍 점순이를 쓰다듬는 어머니의 다정한 손길... 점순이와 다를 바 없는 같은 개인데 뜬장에서 살다 도살되는 개들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 다른 개들과 함께 철창 안에 짓눌린 채 트럭 짐칸에 실려 가던 개는 반려견 놀이터에서 산책 중인 개와 맞닥뜨린다. '누군가 잘 키워 주겠지'라는 마음으로 버려진 솜이, 귀를 팔랑이며 산책하는 대문이, 제주도 가파도의 빈집에 홀로 묶여 있던 백구가 '파도'라는 이름이 생기기까지 다섯 개의 에피소드가 이어진다. '그만먹개(犬) 캠페인'은 개식용 종식을 목적으로 영화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제작한 릴레이 영상 프로젝트이다. 다섯 편의 연작들은 관객들이 영화에 등장하는 개들과 눈을 맞추기를 바라고, 개들의 시선으로 세계를 보길 바란다. 개들이 삶을 가진 존재임을, 그 삶을 상상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모였다.

조현철, 장민승, 박새연, 박성광, 이송희일
CHO Hyunchul, JANG Minseung, PARK Saeyeon, PARK Sungkwang, LEESONG Heeil
'그만먹개(犬) 캠페인'은 임순례 감독과 이진숙 프로듀서가 총괄을 맡고 있다. 2023년 프로젝트에는 조현철 감독이 〈대문아〉, 장민승 감독이 〈디어 파도(dear PADO)〉, 박새연 감독이 〈드라이브〉, 박성광 감독이 〈친구, 벗(but)〉, 이송희일 감독이 〈짝꿍〉을 연출하였다.



대문아
DAEM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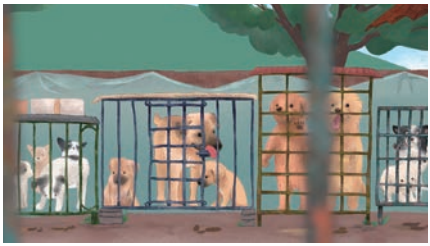
조현철 / 한국 / 202 / 13분 / 다큐멘터리 / 월드 프리미어

스무 살 남짓의 대문이. 대문이를 정성껏 돌보는 이모. 대문이의 일생과 대문이의 눈으로 본 세상을 감독은 상상한다.

디어 파도
DEAR PADO

장민승 / 한국 / 2023 / 10분 / 다큐멘터리 / 월드 프리미어

가파도에 홀로 묶인 개, 백구를 구하고 파도라는 이름을 붙여준다. 파도를 구하지 못했다면 흥에 겨웠던 섬 생활의 추억이 모두 수치스러운 일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드라이브
DRIVE

박새연 / 한국 / 2023 / 3분 / 애니메이션 / 월드 프리미어

뜬장에서 자란 하얀 강아지, 개장수 트럭에 실려 팔려가는 길 처음으로 세상 구경을 한다.

친구, 벗(BUT)
FRIENDS, BUT

박성광 / 한국 / 2023 / 6분 / 극영화 / 월드 프리미어

사랑해 주려고 입양했고 함께해서 행복했었다. 한때는. 이제는 다른 누군가가 잘 키워주겠지.

짝꿍
MY DEAR FRIEND

이송희일 / 한국 / 2023 / 7분 / 다큐멘터리 / 월드 프리미어

점순이를 싫어했던 어머니는 지금 점순이와 세상 둘도 없는 짝꿍이 되었다.

비전과 풍경
VISIONS FROM LANDSCAPES

말이야 바른 말이지
CITIZEN PANE

참나무 숲 동물들
HEART OF OAK

피아페
PIAFFE

라우디 걸
ROWDY GIRL

니카를 찾아서
SEARCHING FOR NIKA

수라
SURA: A LOVE SONG

착취의 종말
THE END OF MEDICINE

인간의 마음
THE HUMAN MIND

여섯 달
6 MONTHS

최근 제작된 동물과 동물권 관련 중요한 신작들을 모은 섹션으로, 세계 각지의 동물들이 자리한 풍경과 비전을 전하는 9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공장식 축산에 대한 비판, 동물구조, 번식장 비판, 개식용 반대, 생태 위기, 반려동물 돌봄, 인간과 비인간동물 간 관계, 자연의 경이 등 익숙한 동물권 영화의 주제를 다루지만, 표현과 전달의 방식은 다양하며 독창적인 시도들이 눈길과 마음을 사로잡는다. 동물을 생각한다는 것이 어떻게 영화를 한층 더 사려 깊고 다채롭게 만드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M2: 10. 21. SAT 15:20

CITIZEN PANE

- 김소형, 박동훈, 최하나, 송현주, 한인미, 윤성호
- 한국
- 2023
- 69분
- 극영화

누가 더 악덕한지 겨루는 기업 관리자들, 냥육권을 두고 다툼 중인 헤어진 동거 커플, 태어날 손주의 본적에 이견이 있는 부녀, 남성 혐오 논란에 빠진 회사를 구해야 하는 팀장과 사원, 블링블링 프러포즈 이벤트에 진심인 5년 차 커플, 서로 다른 새로운 마음을 알게 된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 말이야 바른 말이지, 이게 바로 우리들의 자화상.

김소형, 박동훈, 최하나, 송현주, 한인미, 윤성호
KIM Sohyoung, PARK Dong-hoon, CHOI Hana, SONG Hyeon-ju, HAN Inmi, YOON Seongho

김소형 감독의 〈하리보〉, 박동훈 감독의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최하나 감독의 〈진정성 실전편〉, 송현주 감독의 〈손에 손잡고〉, 한인미 감독의 〈새로운 마음〉, 윤성호 감독의 〈프롤로그〉까지, 여섯 감독의 여섯 편의 영화를 한데 모았다.

참나무 숲 동물들

HEART OF OAK

M1: 10. 21. SAT 20:40
M1: 10. 23. MON 17:20

- 로랑 샤르보니에, 미셸 세두
- 프랑스
- 2022
- 80분
- 다큐멘터리

숲속 한가운데 210년 된 참나무가 있다. 이 거대한 나무는 주변 동물들의 쉼터이자 보호자이다. 다람쥐, 너트 바구미, 어치, 개미, 들쥐 등 범상치 않은 출연진들이 모여 인간의 언어는 한 마디도 들리지 않지만, 스펙터클하고 장엄한 모험영화를 완성한다. 작고, 활기차고, 윙윙대는 자연과 생명에 대한 시적인 찬가.

로랑 샤르보니에 Laurent CHARBONNIER
배우, 영화감독뿐만 아니라 각본, 촬영, 음향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 중이다. 〈사랑의 동물〉(2007), 〈위대한 비상〉(2001), 〈Prédateurs〉(1995)을 통해 대중에 소개되었다.

미셸 세두 Michel SEYDOUX
1947년 파리 출생. 〈우르가〉(1991), 〈위선의 태양〉 (1994), 〈시라노〉(1990)로 알려진 프로듀서이자 영화감독이다.

피아페

PIAFFE

M3: 10. 20. FRI 20:00
M3: 10. 22. SUN 18:50

- 안 오렌
- 독일
- 2022
- 86분
- 극영화

내성적인 폴리 아티스트 에바는 말이 등장하는 광고 속 음향 작업 때문에 힘들다. 어느 날부터 에바의 몸에 말꼬리가 자라나고, 에바는 특이한 놀이를 통해 식물학자와 교감한다. 영화는 통제와 젠더, 기술,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 실제와 영화 사이에 관한 본능적인 여정을 담아낸다.

안 오렌 Ann OREN

이스라엘 텔아비브 출신으로 독일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영화와 비디오 제작을 통해 일상의 수행적 양태를 탐구하고, 작품 속 인물들의 공동체적 욕망을 살핀다. 다수의 단편 작업이 서울동물영화제를 포함해 여러 국제영화제에 소개되었고, 첫 장편영화인 〈피아페〉는 2022년 로카르노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하였다.

라우디 걸
ROWDY GIRL

M1: 10. 21. SAT 15:00
M3: 10. 23. MON 17:30

- 제이슨 골드먼
- 미국
- 2022
- 72분
- 다큐멘터리
- 아시안 프리미어

축산업의 잔인한 현실을 두고 볼 수 없었던 르네는 채식을 시작하고, 텍사스에서 남편이 운영하던 목장을 생추어리로 변화시킨다. 르네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 나가고, 르네는 자신을 찾아온 축산업자들이 기존의 농업을 탈피하고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길들일 수 없는 '라우디 걸'은 르네의 가족이 만든 생추어리의 이름이기도 하고, 영화에 등장하는 소의 이름이기도 하다.

제이슨 골드먼 Jason GOLDMAN

뉴욕 출생. 앨버트 메이즐스 감독의 지도 아래 영화 제작 경험을 쌓았다. 세계적인 캠페인 광고, 단편 다큐멘터리, 장편 오리지널 시리즈를 만들었고, 2023년 첫 장편 다큐멘터리인 〈라우디 걸〉이 핫독스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소개되며 영화감독으로서 전향하였다.

니카를 찾아서
SEARCHING FOR NIKA

M1: 10. 19. THU 19:30
M1: 10. 20. FRI 19:40

- 스타니슬라프 카프랄로프
- 스페인, 우크라이나, 미국
- 2023
- 77분
- 다큐멘터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가족의 반려견 니카가 실종된다. 니카를 찾아 키이우로 돌아가는 길에 전쟁 피해를 당한 동물을 구조하는 활동가들을 만난다.

스타니슬라프 카프랄로프 Stanislav KAPRALOV
우크라이나 출생 감독이자 작가. 장편 데뷔작 〈실종: 사라진 사람들〉(2020)과 단편영화 〈I Am Illusion〉(2018), 〈Sui Caedere〉(2017)을 만들었다.

수라

M1: 10. 21. SAT 12:10

SURA: A LOVE SONG

- 황윤
- 한국
- 2022
- 108분
- 다큐멘터리

간척사업으로 말라가는 갯벌에서, 시민 과학자 동필은 멸종위기 새들을 사진으로 기록한다. 그는 오래전 보았던 도요새의 군무를 잊지 못하고 그리워한다. 영화감독 윤은 동필의 이야기를 듣고 매혹이 전이되는 것을 느낀다. 그녀는 과거에 포기했던 영화를 다시 만들기 시작하며 아름다움을 찾아 나선다.

황윤 HWANG Yun

동물원에 갇힌 호랑이들의 삶에 관한 영화 〈작별〉(2001)이 전환점이 되어 '인간 동물과 비인간 동물의 관계'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만든다. 영화, 책, 언론, 퍼포먼스, 강연, 정책 제안 등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며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 '체인지메이커'로 영화계에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다.

착취의 종말

THE END OF MEDICINE

M3: 10. 22. SUN 12:30
M3: 10. 23. MON 19:30

- 앨릭스 록우드
- 미국, 영국
- 2022
- 70분
- 다큐멘터리
- 인터내셔널 프리미어

어릴 때부터 동물과 함께하는 삶을 꿈꿨고 수의학의 유용함을 굳건히 믿었던 수의사 앨리스 브러프는 불안정한 생활과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녀의 일터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영화는 축산업과 수의학 내부고발자들의 증언과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인간이 동물을 소비하고 취급하는 방식이 어떤 종말을 불러올지 살핀다. 〈73마리의 소들〉(2018)을 연출한 앨릭스 록우드 감독의 첫 장편 다큐멘터리이고, 루니 마라와 호아킨 피닉스가 총괄 제작하였다.

앨릭스 록우드 Alex LOCKWOOD

영국 아카데미 영화상을 수상했다. 〈73마리의 소들〉(2018), 〈Test Subjects〉(2019), 〈착취의 종말〉을 만들었다.

인간의 마음
THE HUMAN MIND

M2: 10. 21. SAT 12:30

- 임진평
- 한국
- 2023
- 72분
- 다큐멘터리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인간의 마음' 세 개의 챕터를 연결하여 재난과 참사가 치유되지 않는 한국 사회의 풍경을 그리는 옴니버스 스토리이다. 가습기 살균제, 개식용 문제, 양평에서 발생한 개들의 집단 사체 사건은 피해와 학대가 인간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임진평 LIM Jinpyung

시나리오와 영화, 다큐멘터리 작업을 병행한다. 관심 갖는 소재는 음악과 동물로, 전통 음악을 다룬 〈두 개의 눈을 가진 아일랜드〉(2008), 길 위의 생명을 위로하는 다큐멘터리 〈개와 고양이를 위한 시간〉(2019) 등을 만들었다. 동물원과 펫숍을 없애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 중이다.

여섯 달
6 MONTHS

온라인에서만 상영됩니다.

- 김지원
- 한국
- 2023
- 30분
- 다큐멘터리
- 월드 프리미어

새벽이 생추어리에는 국내 최초·유일의 구조 돼지 두 마리가 살고 있다. 양돈장에서 구조된 '새벽'과 피실험동물 '잔디'. 생추어리의 돼지와 바깥의 돼지들, 혹은 이름 있는 돼지와 이름 없는 돼지들. 동시적으로 흐르는 이들의 6개월이 정반대의 양극에서 숨과 비명으로 공명한다. 어떤 여섯 달이 현실이고 꿈인지 끝까지 알 수 없다.

김지원 KIM Jiwon

치열한 발버둥 속 드리운 무력한 세계를 이야기한다.

SAFF 쟁점
교차하는 타자성: 동물의 위치
POLEMICS
INTERSECTIONAL OTHERNESSES: THE PLACE OF ANIMALS

잡식가족의 딜레마
AN OMNIVOROUS FAMILY'S DILEMMA

도나 스프링 — 용감한 여정
COURAGE IN LIFE AND POLITICS — THE DONA SPRING STORY

타마강의 고양이와 사람들
TAMANEKO, TAMABITO

적응
ADJUSTING

곰
BEAR

서울동물영화제 SAFF 쟁점은 매년 특정 주제를 선택해 영화를 상영하고 포럼을 통한 토론장을 생성한다. 올해 SAFF 쟁점의 주제는 '교차하는 타자성: 동물의 위치'로, 교차성 담론에 '교차성' 담론에 동물권, 비인간 동물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기입하고 논의하고자 기획되었다. 타자, 타자성 그리고 타자성 간의 교차에 대한 논의가 치열한 가운데 이러한 '교차성'의 담론에 동물권, 비인간동물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고, 동물과 동물권의 위치, 인간동물-비인간동물 사이의 위계와 연계성에 대해 질문한다.

장애인으로서 동물실험으로 만들어진 약과 치료를 거부했고,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 '동물실험의 대안을 지지하는 장애인과 불치병 환자들(DIIAAR)' 결성하여, 의사연합과 제약회사와 격렬하게 싸웠던 정치인이자 운동가 도나 스프링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도나 스프링 — 용감한 여정〉, 유기되고 학대당한 고양이와 그 고양이들을 돌보는 노숙자, 그리고 또 그들을 살피는 활동가를 기록한 〈타마강 고양이와 사람들〉, 교감과 상호작용이 어떻게 위계적으로 작동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는 〈적응〉, 공장식 축산업은 어떻게 인간 중심적이면서 동시에 젠더적인지를 보여주는 〈잡식 가족의 딜레마〉, 동물을 촬영한다는 것이 타자를 대상화하는 영화 촬영과 타자화의 위계에 대한 생각으로 연결되는 〈곰〉을 상영한다. 연계 포럼에는 페미니즘, 퀴어, 장애인권, 난민, 생태 등 다양한 영역들과 동물권을 교차하며 사유하고 운동해 온 연구자, 활동가들이 참여한다.

잡식가족의 딜레마

M1: 10. 21. SAT 17:20

AN OMNIVOROUS FAMILY'S DILEMMA

- 황윤
- 한국
- 2014
- 106분
- 다큐멘터리

사랑할까, 먹을까! 구제역이 전국을 휩쓸던 어느 겨울날, 육아에 바쁘던 영화감독 윤은 살아있는 돼지를 평소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음을 깨닫고 돼지를 찾아 길을 나선다. 산골 마을 농장에서 돼지들의 일상을 지켜보던 윤은 이제껏 몰랐던 돼지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황윤 HWANG Yun

동물원에 갇힌 호랑이들의 삶에 관한 영화 〈작별〉(2001)이 전환점이 되어 '인간 동물과 비인간 동물의 관계'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만든다. 영화, 책, 언론, 퍼포먼스, 강연, 정책 제안 등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며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 '체인지메이커'로 영화계에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다.

도나 스프링 — 용감한 여정

M2: 10. 21. SAT 20:20

COURAGE IN LIFE AND POLITICS — THE DONA SPRING STORY

- 린지 버릭
- 미국
- 2007
- 71분
- 다큐멘터리
- 인터내셔널 프리미어

소수의 동물실험장면 있으며,
58분 30초 화면깨짐 현상이 있습니다.

버클리 시의회에서 수년간 활동하며 미국에서 가장 오래 의정활동을 한 녹색당 의원 도나 스프링. 도나는 환경, 평화, 재개발 반대, 동물 보호, 그리고 장애인 인권을 지지하는 운동가로, 의회 정치인으로서도 평생 버클리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장애인인 도나는 동물실험으로 만들어진 약과 치료를 거부했고,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 '동물실험의 대안을 지지하는 장애인과 불치병 환자들(DIIAAR)'을 결성하여 의사연합, 제약회사와 격렬하게 싸웠다.

린지 버릭 Lindsay VUREK

1990년부터 녹색당에서 활동하였고, 캘리포니아 알라메다 카운티의 초대 녹색당 시의회에 선출되었다. 잠시 떠나 있던 시기도 있었지만, 현재는 지역의 녹색당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와 연방 정부 범주에서 동물 보호, 선거 및 주요 언론 개혁 등 문제를 살피고 있다.

타마강의 고양이와 사람들

TAMANEKO, TAMABITO

M3: 10. 20. FRI 18:00
M1: 10. 22. SUN 17:20

- 무라카미 히로야스
- 일본
- 2022
- 91분
- 다큐멘터리
- 인터내셔널 프리미어

도쿄의 타마강에는 수많은 고양이가 버려진다. 버려진 고양이를 돌보는 것은 인근의 노숙자들과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1990년대부터 고양이를 카메라에 담는 사진작가 코니시시다. 그는 타마강의 고양이들뿐만 아니라 노숙자들까지 돌보고 있고, 아내 미치코는 30년째 고양이 구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영화는 이들 부부를 통해 인간 동물과 비인간동 물의 관계, 생명의 존중에 관해 묻는다.

무라카미 히로야스 MURAKAMI Hiroyasu

1966년 미야기현 센다이시 출생. 타마강 하구 갯벌에 살고 있는 노인과 고양이들을 담은 장편 다큐멘터리 〈도쿄 하이타이드〉(2019)로 다수 영화제에서 입상과 수상을 하였다. 〈포 퍼스펙티브스: 어 디케이드 애프터 3.11〉(2021)로도 알려져 있다.

적응
ADJUSTING

M2: 10. 21. SAT 20:20

- 데얀 페트로비치
- 세르비아
- 2021
- 19분
- 다큐멘터리

도시 외곽에 고립된 유기견은 동물 통제관에 의해 특수한 목적의 보호소로 보내진다. 훈련에 적응해야 하는 유기견들과 같은 상황에 놓인 인간들이 유기견 훈련자로 등장하면서, 인간과 동물 사이의 연계, 우정, 그리고 차이가 보여진다.

데얀 페트로비치 Dejan PETROVIC
프로듀서이자 영화감독. 암스테르담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비죵 뒤 레앨 영화제 등에서 다수의 작품이 소개되었다. 2013년 단편영화 〈적응〉은 독 얼라이언스 어워드에서 최우수 단편 다큐멘터리 부문 후보로 올랐다. 베오그라드 예술 아카데미에 다큐멘터리 영화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곰
BEAR

M2: 10. 21. SAT 20:20

- 모르간 프런드
- 스위스
- 2022
- 19분
- 다큐멘터리
- 코리안 프리미어

수년간 곰을 촬영해 온 아마추어 영화감독은 촬영한 영상을 영화로 편집하기 위해 영화학교에 연락한다. 편집을 돕게 된 학생은 영상을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곰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가 연속적으로 촬영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시선의 힘과 그 시선이 가진 관음적 폭력에 대한 그들의 논쟁이 시작된다.

모르간 프런드 Morgane FRUND

1997년 스위스 로잔 출생. UNIL에서 영화와 영어, 독일어를 공부했다. 다큐멘터리, 비디오 에세이, 공연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Pulmuone | 풀무원아미오 amio

반려동물의 바른먹거리
풀무원아미오

반려동물 바른먹거리

나의 친구(ami) 반려동물을 위한 나의 의무(obligation)로,
풀무원이기에 까다롭지만, 반려동물 첨가물 원칙을 지킵니다.

Best! 자연담은간식 두부너겟

식물성 원료
풀무원두부가
들어갔어요!

- 알러지 개선에 도움
- 식물성 단백질 풀무원 두부 19.8%
- 당근, 브로콜리, 고구마, 단호박 함유

풀무원아미오 인스타그램

SAFF 단편 경쟁
SAFF COMPETITION

단편 경쟁 1
COMPETITION 1

1. 동물병원
   ANIMAL HOSPITAL
2. 새벽 거리
   BEFORE DAWN
3. 잉어 크리스마스
   CARP XMASS
4. 냉혈한
   COLD BLOODED
5. 난드리의 산책 길
   NANDRI AND THE COCONUT GROVE
6.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야
   NOT A FAIRY TALE
7. 오보(OVO)
   OVO
8. 프르스트
   PLSTC
9. 로드킬 잼버리
   ROADKILL JAMBOREE

단편 경쟁 2
COMPETITION 2

1. 카를라 — 유럽정원거미에 관한 단편 다큐멘터리
   A SPIDER NAMED CARLA — A SHORT DOCUMENTARY ABOUT AN ARANEUS DIADEMATUS
2. 버드 드론
   BIRD DROME
3. 보와 쓰레기
   BO AND TRASH
4. 초복
   DOG DAYS
5. 고릴라 경비원, 조이
   JOY
6. 열 걸음
   TEN STEPS
7. 사라지는 것들
   THINGS THAT DISAPPEAR

단편 경쟁 3
COMPETITION 3

1. 애니멀
   ANIMAL
2. 길 위의 집
   CITY OF HOMELESS
3. 잃어버린 보석, 산호
   DISAPPEARING JEWELS
4. 비행공포
   FEAR OF FLYING
5. 야생 금작화의 경이로운 고통
   THE WONDERFUL PAIN OF THE WILD BROOM
6. 하루에 두 번
   TWICE A DAY

SAFF 단편경쟁은 지난해 신설된 서울동물영화제 유일의 경쟁 프로그램으로, 1년 만에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84개국에서 총 685편이 출품되어 지난해 25개국 102편에서 큰 폭으로 출품 편수가 늘어났으며, 주제와 형식의 측면에서도 더욱 다양하고 깊이 있는 사유와 도전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다수 모였다. 이 중 22편의 작품이 예심을 거쳐 영화제 기간 극장과 온라인 상영을 통해 관객들을 만난다. 동물의 서식지 침범과 육식 위주의 식단과 인간 중심의 인간/비인간 관계, 생태계에 대한 관찰과 근심 등 동물권에 대한 다양한 탐구들이 담겨있다.

형식상으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큐멘터리의 다양한 시도이다. 에세이 형식의 다큐멘터리, 관찰, 실험, 극영화와 애니메이션의 결합 등의 단편 다큐멘터리 형식은 동물을 비롯한 비인간 존재들을 대하고 표현하는 카메라의 태도와 거리, 그리고 촬영 방법에 대한 성찰로 그 자체가 주제가 되기도 한다. 지난해에 이어 수작 애니메이션도 다수 본선 진출작에 포함되었는데, 표현과 상상의 한계를 한층 더 확장하며 동물영화의 도전적인 사례들을 만들었다. SAFF 단편경쟁 본선 진출작들은 각 상금 500만 원과 200만 원이 수여되는 작품상과 관객상의 후보가 된다.

SAFF 단편 경쟁 1

SAFF COMPETITION 1

M3: 10. 21. SAT 12:30

후안 르노 Juan RENAU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을 졸업 후, 다큐멘터리 감독 및 촬영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동물들을 영화에 자주 담는데, 특히 개를 자주 영화에 등장시킨다.

동물병원
ANIMAL HOSPITAL

후안 르노 / 프랑스, 아르헨티나 / 2023 / 21분 / 다큐멘터리

부에노스아이레스에는 아픈 동물을 위한 보호소가 있다. 아픈 동물과 그들의 주인이 직접 설립한 이곳에서 열정적인 수의사들은 그들을 환대하며 최선을 다해 병을 치료하고 돌본다.

웨이 쉬 Wei XU
1995년 중국 징저우에서 태어났으며, 2017년 후베이 미술 대학에서 애니메이션 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일본 도쿄예술대학의 석사 과정에서 영화 및 뉴미디어를 공부하며, 애니메이션 영화를 주로 기획하는 기업 OLM에 근무 중이다.

새벽 거리
BEFORE DAWN

웨이 쉬 / 중국, 일본 / 2022 / 7분 / 애니메이션 / 코리안 프리미어

차갑고 습한 아침, 두 족제비가 조용한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 어느 순간 그들은 헤어지게 되지만, 이내 다시 만나게 된다. 도시 곳곳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하고, 새벽이 밝아 온다.

안나 헤리바노바 Anna HERIBANOVÁ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하고, 그린피스에서 근무하였다. 이후, 프라하의 공연예술 아카데미(FAMU)에서 애니메이션을 전공하였으며, 〈잉어 크리스마스〉는 졸업 작품이다. 단편 습작 〈Fabulous World〉(2014)는 PAF와 Tricky Women에서 상영된 바 있다.

잉어 크리스마스
CARP XMASS

안나 헤리바노바 / 체코 / 2022 / 8분 / 애니메이션

옛날 옛적 어느 외딴 작은 마을에는 크리스마스이브를 준비하는 잉어들이 있었습니다. 평화롭고 행복했죠.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그 가치를 오랜 시간 전에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연중 소비의 정점이 되었고, 이 거룩한 날을 위해 목숨을 잃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안나 아지로스 Anna ARGIROS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만드는 것을 사랑하는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영화감독.

냉혈한
COLD BLOODED

안나 아지로스 / 영국 / 2023 / 2분 / 애니메이션 / 아시안 프리미어

한 남자의 여유로운 휴가는 위험에 빠진 물고기의 등장으로 중단된다.

라반야 라마이아 Lavanya RAMAIAH
매일 잘 살아가고, 예리하게 관찰하는 것은 그 자체로 영화이다. 시각과 음향의 다양한 의미를 탐구하고, 새로운 연결고리를 발견하는 호기심은 평범해 보이는 일상을 마법과 같고 탐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든다.

난드리의 산책 길
NANDRI AND THE COCONUT GROVE

라반야 라마이아 / 인도 / 2023 / 22분 / 다큐멘터리 / 월드 프리미어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단순한 기쁨에 관하여. 언제 달려야 하고, 언제 속도를 늦춰야 하는지, 반려견이 길을 이끌 때 조우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영화는 인간, 동물, 나무, 새 등 모든 존재가 살아가는 하나의 시공간에 흐르는 연결성을 탐구하는 시도이다.

말고르자타 리바크 Malgorzata RYBAK
폴란드의 크라쿠프에 위치한 공립 대학교와 순수 예술 대학에서 두 개의 석사 학위를 졸업한 후, 크리에이티브/그래픽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다.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야
NOT A FAIRY TALE

말고르자타 리바크 / 폴란드 / 2023 / 3분 / 애니메이션 / 아시안 프리미어

예상하지 못한 비인간 방문자들에 의해 시작된 가로등의 비범한 능력에 대한 이야기. 믿거나, 말거나 이것은 실화이다. 그리고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벤자민 에반 윌리엄스

Benjamin Evan WILLIAMS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로, 여러 예술 매체의 결합인 스톱 모션을 탐구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의 달걀 수도'라고 불리는 캘리포니아의 페탈루마에서 자랐으며, 주변을 둘러싼 닭과 그들에 대한 학대와 관련된 이미지는 그의 작업과 세계 및 식품 시스템을 인식하는 것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오보(OvO)
OvO

벤자민 에반 윌리엄스 / 미국 / 2022 / 7분 / 애니메이션 / 코리안 프리미어

영원한 학대의 굴레에 갇힌 비인간 신체의 관점에서 의식의 진입과 떠남에 대한 탐구한다.

레앙 상셰즈 Laen SANCHES

프랑스에서 태어나 암스테르담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학에서 응용 미술을 공부하였으며,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 및 연출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파리와 로스앤젤레스를 오가며 아트 디렉션과 모션 그래픽으로 분야를 확장하였으며, 글로벌 브랜드의 크리에이티브 및 모션 디렉터 활동과 개인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프라스트
PLSTC

레앙 상셰즈 / 프랑스 / 2022 / 2분 / 애니메이션

플라스틱으로 오염된 해저 디스토피아, '프라스트'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AI가 생성하고 수작업으로 합성된 이미지는 인간의 습관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파괴적인 결과를 직시하게 하고, 숨을 헐떡이게 만든다.

메건 G. 그레이엄 Meghan G. GRAHAM
미국 산호세 주립 대학에서 애니메이션을 전공했다. 스톱모션 기술을 활용한 애니메이션과 멀티미디어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스톱모션이라는 매체가 어떠한 만화 같은 이야기일지라도 실제 같은 감각과 느낌을 관객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고 믿는다.

로드킬 잼버리
ROADKILL JAMBOREE

메건 G. 그레이엄 / 미국 / 2023 / 6분 / 애니메이션 / 아시안 프리미어

스카 펑크 계열 밴드인 서브얼반 레전드의 음악과 함께, 동물들에게 도로와 운전자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루는 스톱모션 뮤직비디오다. 이 음울하면서도 유머러스한 이야기는 좀비 동물 밴드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다섯 동물은 캘리포니아의 동물을 대표하면서도, 로드킬이 발생하는 다양한 이유를 상징한다.

SAFF 단편 경쟁 2

SAFF COMPETITION 2

M3: 10. 21. SAT 14:20

미켈레 세르지오 포치

Michele Sergio POZZI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저예산 단편 영화와 웹 시리즈물을 제작해 왔으며, 현재는 데이터 과학자로 일하면서 영화를 만들고 있다.

카를라 — 유럽정원거미에 관한 단편 다큐멘터리
A SPIDER NAMED CARLA — A SHORT DOCUMENTARY ABOUT AN ARANEUS DIADEMATUS

미켈레 세르지오 포치 / 이탈리아 / 2022 / 7분 / 다큐멘터리 / 인터내셔널 프리미어

유럽정원거미(Araneus Diadematus)에 관한 농담 같은 다큐멘터리이다. 이 거미는 무당거미, 황달거미, 십자무늬거미, 왕관거미, 호박거미와 같은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다.

라데야 장 제가데바

Radheya Jang JEGATHEVA

말레이시아에서 태어나 서호주를 기반으로 활동한다. 애니메이션, 극영화, 다큐멘터리, 대규모 설치 작품과 공공 프로젝트를 아우르며 영화와 애니메이션의 교육과 사회 발전 분야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버드 드론
BIRD DROME

라데야 장 제가데바 / 호주 / 2023 / 9분 / 애니메이션 / 아시안 프리미어

사랑을 찾아 헤매는 외로운 갈매기는 자신이 사랑에 빠진 상대가 인간이 조종하는 드론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타티아나 스콜루프키나
Tatiana SKORLUPKINA
러시아의 국립음악대학에서 하프를 전공하였으며, 러시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미술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음악가, 작곡가, 감독, 애니메이터, 각본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의 작품에서 장르는 변형되고 엮이며, 이미지는 음악이 되고, 음악은 이미지가 되며, 문학은 생동하기 시작한다.

보와 쓰레기
BO AND TRASH

타티아나 스콜루프키나 / 스페인 / 2022 / 12분 / 애니메이션 / 아시안 프리미어

우리 행성은 쓰레기로 질식하고 있다. 쓰레기는 생명체로 변해가며 지구상의 미묘한 균형을 침해하고 어지럽히고 있다. 용감한 화학자인 보는 이 끔찍한 괴물을 이기는 마법의 해결책을 발명한다. 그의 목숨을 걸고 동물과 새를 구하기 위해, 그리고 보 자신을 구하기 위해.

이영아 LEE Young-a
1989년 출생. 〈초복〉은 첫 번째 단편 연출 작품이다.

초복
DOG DAYS

이영아 / 한국 / 2022 / 10분 / 극영화

지난여름 쵸코라는 강아지를 잃고 슬픔에 잠긴 세영은 1년이 지난 지금도 그 슬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쵸코 주인을 찾아가 함께 있어 주려 했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다. 방황하던 세영은 무언가 다짐하며 누군가를 찾아 나서는데…

아네르 에체베리아 모랄
Aner ETXEBARRIA MORAL
야생의 자연과 발견되지 않은 세계에 대한 열정으로 보존과 인류학에 관한 이야기를 만든다. 유럽의 밍크 보호 프로그램에서 촬영 감독으로 일한 후, 안덱스 산맥의 캐추아 공동체와 몇 달 동안 함께 생활하며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2013년에는 제작사를 설립하여 여러 다큐멘터리를 통해 NGO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고릴라 경비원, 조이
JOY

아네르 에체베리아 모랄 / 우간다 / 2022 / 22분 / 다큐멘터리

우간다 남서부에 위치한 음가힝가 고릴라 국립공원에는 '조이(Joy)'와 '냐카게지(Nyakagezi)' 가족이 살고 있다. 구름바다에 뒤덮인 숲속 낙원의 두 가족은 서로를 가족처럼 여긴다. 야생동물이나 밀렵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 결단력을 보여주는 어머니의 이야기이다.

고연우, 김호수, 박정언, 신혜인, 유다온, 이한
KOH Yeonwoo, KIM Hosu, PARK Jeongeon, SHIN hyein, YOO Daon, LEE han
'우리는 살아있으니 함께 노래해요' 프로젝트를 함께 하는 초·중학교 친구들이다.

열 걸음
TEN STEPS

고연우, 김호수, 박정언, 신혜인, 유다온, 이한 / 한국 / 2022 / 3분 / 애니메이션 / 월드 프리미어

열 걸음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강아지 사랑이는 가끔 사랑이에게 인사를 건네는 아이를 만난다. 어느 날 아이는 사랑이와 아줌마에게 산책을 제안하는데… 열걸음 안의 사랑이에게 또 다른 세상이 열릴까?

김창수 KIM Changsoo
1972년 광주 출생. 개인 작품을 만드는 애니메이터로 살고 있다.

사라지는 것들
THINGS THAT DISAPP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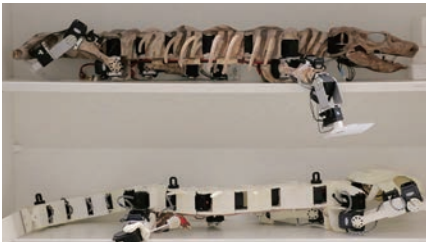
김창수 / 한국 / 2022 / 11분 / 애니메이션

재개발 지역의 독거노인이 길고양이의 장례를 치르며 겪는 이야기.

SAFF 단편 경쟁 3

SAFF COMPETITION 3

M3: 10. 21. SAT 17:50



리카르도 자코니 Riccardo GIACCONI
베네치아 IUAV에서 미술을 공부했고, 스위스 연방 공과대학교, 로마 MARCO 현대 미술관을 비롯한 여러 기관과 레지던스에서 작업 활동을 이어 왔다. 현재는 보스턴의 터프츠 대학의 순수 예술 학과에서 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애니멀
ANIMAL

리카르도 자코니 / 스위스 / 2023 / 20분 / 다큐멘터리 / 아시안 프리미어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발전, 그리고 고대 인형극의 '불쾌한 골짜기' 사이의 평행선에서 대화를 시도한다. '불쾌한(언캐니)'라는 개념을 분석하고, 물체를 조종하고, 움직이게 만들며, 생명을 부여하는 인공지능과 로봇 분야의 연구자들, 그리고 극단과의 대화를 아우르는 두 가지의 동시적 노력을 다룬다.

강민규, 정연수 KANG Mingyu, JUNG Yeonsoo
'독픽 프로덕션'이라는 이름으로, 개띠 정연수 감독과 돼지띠 미디어 아티스트 강민규 작가가 함께한다. 단편 다큐멘터리의 화법으로 기후 변화가 삶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한다. 〈이 편한 세상〉(2021)으로 첫 합을 맞췄고 〈길 위의 집〉(2022), 〈수선의 미학(가제)〉(2023)을 제작했다.

길 위의 집
CITY OF HOMELESS

강민규, 정연수 / 한국 / 2022 / 6분 / 다큐멘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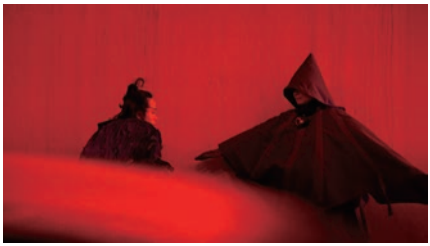
봉천동 어느 골목, 길냥이 '넓적이'와 좁은 원룸에서 함께 지내는 민규와 연수가 있다. 기록적인 폭우가 닥친 어느 날, 넓적이와 두 사람의 터전이 비와 함께 쓸려간다. 그리고 좁은 월세살이의 끝.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친구를 찾아가듯 매일 밤 예전 동네를 찾아간다.찾아간다.

윌 킴 Will KIM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나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자랐다. 칼아츠에서 학사 학위를, UCLA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그의 작품은 다양한 국제 영화제와 미술관에서 전시되었다. 현재는 캘리포니아주의 리버사이드 시티 칼리지에서 애니메이션을 가르치고 있다.

잃어버린 보석, 산호
DISAPPEARING JEWELS

윌 킴 / 미국 / 2023 / 16분 / 애니메이션

감독의 기억 속, 눈이 보이지 않던 할아버지는 걸어 다니는 날씨 예측가였다. 영화는 해양 및 해양 동물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기후 변화와 해양 온난화의 영향에 대한 시각을 제시한다.



흑표범 Black Jaguar
몸의 수행을 통해 소수자 이슈에 접근하고 있다. 서로 다른 존재들을 쉽게 동질화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경계의 소수자와 여성을 바탕으로 연결하고 연대하는 퍼포먼스를 펼쳐왔다. 최근에는 군사 지역의 훼손된 자연, 기후 위기 속의 생태를 또 다른 소수자 주체로 바라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비행공포
FEAR OF FLYING

흑표범 / 한국 / 2023 / 11분 / 실험영화 / 월드 프리미어

비인간동물의 몸짓을 수행하는 서로 다른 세대의 두 여성이 마주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인간 중심적인 감각에서 벗어나 주변적 감각으로 대상화된 존재들을 다시 바라보고자 하는 시니어 여성 작가 홍이현숙의 행위와 존재는 흑표범에게 유년 시절 집의 상실감을 채워주는 듯한 정신적 토양과 뿌리의 느낌을 일으킨다.

올리비아 칼카테라 Olivia CALCATERRA
스위스에서 태어났으며, 2022년 로잔 예술대학에서 단편 〈야생 금작화의 경이로운 고통〉으로 영화 연출 과정을 졸업했다. 그녀의 작품은 인간 존재의 연약함에 집중하며 숨겨진 세계를 열어젖힌다.

야생 금작화의 경이로운 고통
THE WONDERFUL PAIN OF THE WILD BROOM

올리비아 칼카테라 / 스위스, 스페인 / 2022 / 22분 / 다큐멘터리 / 인터내셔널 프리미어

이유 없이 버려진 개들에 관한 단편 다큐멘터리. 이탈리아 시인 레오파르디의 강인한 회복력의 시로부터 영감받아, 누군가에 의해 버려진다는 것에 대해 인간과 개의 감정을 하나로 결합하여 시각화한다.

아드리아나 페라레제
Adriana FERRARESE
어린 시절부터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오갔으며, 파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이탈리아 출신의 감독이자 포토그래퍼이다. 파리에서 영화와 제작을 공부했으며, 다큐멘터리 제작 회사 'Ceresa Films'을 설립했다.

하루에 두 번
TWICE A DAY

아드리아나 페라레제 / 프랑스 / 2023 / 7분 / 다큐멘터리 / 월드 프리미어

평범한 현대의, 평범한 농장에서 소들은 매일의 삶을 반복한다. 그들은 인간의 존재를 회피하는 자연 세계와 인공 세계 사이를 오간다. 로봇은 그들의 우유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며, 최적화된 시스템의 군인처럼 작동한다.

SAFF 포커스:
탈출하고 표류하는 동물들

OBSERVATORY:
FROM CAGES TO CAGES

5회 서울동물영화제부터 신설된 프로그램으로, 국내 동물권 관련 제도적이고 긴급한 현안을 선정, 관련 영화 상영과 포럼을 마련한다. 올해 주제는 '탈출하고 표류하는 동물들'이다. 사자 사순이, 퓨마 뽀롱이, 얼룩말 세로 등 동물원에서 탈출하여 사살되거나 포획되었던 국내 현실을 바탕으로 동물원 동물들의 복지와 삶에 대해 질문하고 토론한다. 포커스 섹션에서는 실제 아르헨티나에서 일어난 동물원 내 동물사망 사건과 관련된 소송으로부터 시작하여 동물원에 대한 대안을 여러 각도로 질문하는 다큐멘터리 〈주포비아〉를 상영하며, 연계 포럼에서는 남종영 기자, 이형주 대표, 김규태 교수, 김정호 수의사, 최인수 카라 활동가가 참여하여 심층 토론을 나눈다.

주포비아
ZOOPHOBIA

M3: 10. 21. SAT 20:20
M2: 10. 22. SUN 12:10

- 파블로 체헤바르, 니콜라스 이아코우지
- 아르헨티나
- 2022
- 95분
- 다큐멘터리
- 아시안 프리미어

크리스마스 불꽃놀이로 기온이 상승하자 동물원의 북극곰이 사망했고, 백 년 가까이 운영된 동물원의 종말이 시작된다. 스타트렉의 한 에피소드처럼 배트맨을 좋아하는 변호사는 동물원에 남은 마지막 오랑우탄 산드라를 '비인간 인격'으로 선언하도록 법정에 청구하고, 이는 온 우주를 뒤흔들 역사적 사건이 된다. 부끄러운 실수와 기억될 인물들 그리고 열정으로 가득 찬 아르헨티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파블로 체헤바르, 니콜라스 이아코우지
Pablo CHEHEBAR, Nicolas IACOUZZI
2012년 매티체 영화사를 설립, 2015년 다큐멘터리 〈Beavers: Patagonia Invaders〉와 〈이중첩자가 된 사나이〉을 선보였다. 〈주포비아〉는 그들의 신작이며, 현재는 〈Dinolandia〉와 〈Espejo 215〉을 촬영하고 있다.

인간의 극장, 동물의 스크린
THE CINEMATIC GAZE OF ANIMALS

추락의 해부
ANATOMY OF A FALL

갓랜드
GODLAND

쇼잉 업
SHOWING UP

상업영화와 예술영화를 가로질러 최근 몇 년간 전 세계 화제작들의 특징 중 하나는 프레임과 시간에 동물 존재와 동물의 시선을 점점 더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극장, 동물의 스크린'은 동물을 비롯한 비인간 존재들이 빈번하게 프레임에 등장하고 영화의 시간을 점유하며 시네마의 풍경을 변화시키고 있는 상황에 주목, 관련 특징이 두드러지는 주요 화제작을 상영하는 6회 서울동물영화제의 특별 프로그램이다. 동물의 시점쇼트나 정면쇼트가 중요하게 등장하며 내러티브와 관련을 갖거나 혹은 내러티브와 관련을 전혀 갖지 않더라도 영화가 발신하는 감응에 주요하게 연결되는 영화들에 주목한다.

카메라로 미국의 풍경과 주변적 삶, 동물을 채집하며 독보적인 영화 세계를 구축해 온 켈리 라이카트 감독의 〈쇼잉 업〉, 편재하는 말과 개의 이미지와 움직임으로 식민주의 남성폭력성을 고발하는 〈갓랜드〉, 스릴러의 정점에 인간이 아닌 시점이 포함되는 혹은 평행하는 76회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 〈추락의 해부〉를 상영한다.

추락의 해부

ANATOMY OF A FALL

M1: 10. 22. SUN 19:30

- 쥐스틴 트리에
- 프랑스
- 2023
- 151분
- 극영화

산드라와 사뮤엘은 시각 장애가 있는 아들 다니엘, 반려견 스눕과 함께 프랑스 알프스의 외딴 산장에서 살고 있다. 갑작스러운 사뮤엘의 죽음 이후, 그의 죽음이 자살인지 혹은 범죄에 연루된 것인지를 밝히는 조사는 점차 미궁으로 빠진다.

쥐스틴 트리에 Justine TRIET

파리 국립고등미술학교를 졸업했다. 단편 〈제자리에서〉(2007), 〈솔페리노〉(2009) 등을 연출했다. 〈에이지 오브 패닉〉(2013)은 장편 데뷔작으로 카이에 뒤 시네마가 선정한 그 해 최고의 영화 리스트에 올랐다. 그 후 〈빅토리아〉(2016)를 연출했으며, 2018년에 만든 〈시빌〉(2018)은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과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된 바 있다. 〈추락의 해부〉는 2023년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작품이다.

갓랜드
GODLAND

M2: 10. 21. SAT 17:30
M3: 10. 22. SUN 14:10

- 힐누르 팔마손
- 덴마크, 아이슬란드, 프랑스, 스웨덴
- 2022
- 143분
- 극영화

19세기 말, 덴마크의 젊은 사제 루카스는 아이슬란드 외딴섬의 교회를 완공하고 그곳 주민들의 사진을 찍기 위한 사역을 떠난다. 용서받지 못한 땅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그는 자신의 목적, 사명, 도덕으로부터 길을 잃기 시작한다.

힐누르 팔마손 Hlynur PÁLMASON
아이슬란드 출신의 아티스트이자 영화감독이다. 비주얼 아티스트로 시작하여 덴마크국립영화학교에서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다. 장편 데뷔작 〈겨울형제〉(2017)는 로카르노 영화제를 비롯한 여러 영화제에서 수상하였으며, 〈갓랜드〉는 그의 세 번째 장편영화다.

쇼잉 업
SHOWING UP

M1: 10. 20. FRI 17:00
M1: 10. 22. SUN 12:00

- 켈리 라이카트
- 미국
- 2022
- 108분
- 극영화

고양이와 살며 새로운 전시를 앞둔 리지는 예술가로서 사는 삶과 가족, 친구와의 일상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어느 날 비둘기 한 마리가 리지의 삶에 나타난다.

켈리 라이카트 Kelly REICHARDT
〈웬디와 루시〉(2008), 〈어떤 여인들〉(2016), 〈퍼스트 카우〉(2019) 등을 통해 미국의 풍경과 자연, 주변의 삶과 동물을 주제로 하는 독보적인 영화 세계를 다져왔다. 뉴욕대학교, 컬럼비아대학교 등을 거쳐 현재 바드대학교에서 전임 예술원으로 재직 중이다.

식물의 낮과 밤
PLANTS' DAY AND NIGHT

장소에 존재하기 — 마거릿 테이트의 초상
BEING IN A PLACE — A PORTRAIT OF MARGARET TAIT

라이트 니즈
LIGHT NEEDS

잠들지 않는 새들
SLEEPLESS BIRDS

정원 영화들
GARDEN PIECES

트리라인
TREELINE

몇 년간 실내 생활로 인한 '반려식물'과 생태 위기로 인한 녹색환경에 대한 관심이 부쩍 증가했다. 식물의 낮과 밤은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생산하는 '식물적' 삶, 식물과의 돌봄 관계, 생태 위기와 관련한 녹지파괴, 식물을 영화로 포착하기 등 식물과 인간 삶의 관계를 살펴보는 6회 서울동물영화제의 특별 프로그램이다. 스코틀랜드 최초의 여성 장편영화 감독이자 여전히 수수께끼 같은 시인 겸 영화감독 마거릿 테이트의 〈정원 영화들〉, 이러한 마거릿 테이트가 정원과 자연, 동물을 담는 방법을 탐구한 루크 파울러 감독의 〈장소에 존재하기 — 마거릿 테이트의 초상〉, 관엽식물의 복화술로 대화하는 제시 맥클린 감독의 〈라이트 니즈〉, 온실 산업을 고발하면서도 다큐멘터리와 SF의 경계에서 새로운 화법으로 말을 건네는 〈잠들지 않는 새들〉, 전 세계에서 모인 숲의 푸티지를 담은 〈트리라인〉이 상영된다.

장소에 존재하기 — 마거릿 테이트의 초상

M1: 10. 22. SUN 15:10

BEING IN A PLACE - A PORTRAIT OF MARGARET TAIT

- 루크 파울러
- 영국
- 2022
- 61분
- 다큐멘터리
- 아시안 프리미어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영화감독 중 하나인 마거릿 테이트를 살펴본다. 오크니의 풍경에 기반을 둔 마거릿의 생애와 작업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마거릿이 풍경을 촬영하는 것보다 장소를 구성하는 정밀한 양식과 간과되는 작은 것들에 흥미로워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감독 루크 파울러는 영화를 시적 매체로 이해하는 마거릿의 방법론에 예민하게 감응하는 동료 예술가의 시선으로, 마거릿의 영화만들기에 경의를 표한다.

루크 파울러 Luke FOWLER

글래스고에 기반을 둔 예술가이자 음악가, 영화감독. 현대 문화에 의해 소외되거나 지워지거나 잘못 표현되었던 인물이나 움직임을 포착한다. 2018년 데릭저먼상을 수상했고, 첫 장편영화인 〈로널드 랭의 분열된 자아〉(2011)로 터너상 후보에 올랐다.

라이트 니즈
LIGHT NEEDS

M2: 10. 22. SUN 19:20

- 제시 맥클린
- 미국
- 2023
- 74분
- 다큐멘터리
- 아시안 프리미어

사람과 식물 사이에서 포착된 놀랍도록 친밀하고 복잡하게 얽힌 관계를 실험적으로 다뤄낸다. 수년에 걸쳐 다양한 주거, 전문 공간에서 수집한 푸티지를 통해, 사람과 식물이 함께 살고 관계 맺는 서로 다른 방식을 증명한다. 식물과 동물의 사회적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고찰하고,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에 귀 기울임으로써, 다른 생명체에 대한 보살핌과 책임을 조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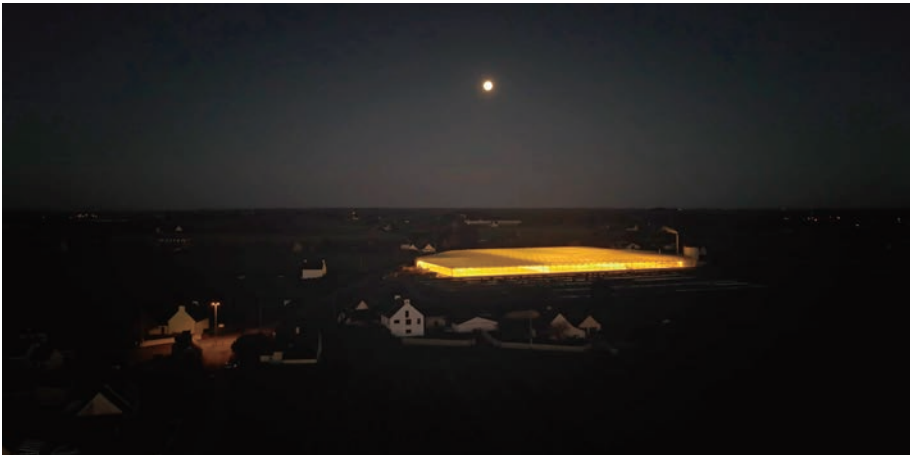
제시 맥클린 Jesse McLEAN

인간이 아닌 것과 인간이 되는 것을 탐구한다. 근작들을 통해 이러한 관계에서 형성된 깊은 친밀감과 유대감을 시사하며, 인간이 아닌 개체의 유한한 능력과 인간의 무한한 욕구를 대조하고 있다. 다수의 작품이 세계적인 미술관, 갤러리, 영화제에서 소개되었다.

잠들지 않는 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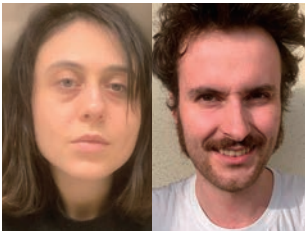
SLEEPLESS BIRDS

M3: 10. 22. SUN 17:00



- 다나 멜라버, 톰 클라우돈
- 독일
- 2022
- 45분
- 다큐멘터리
- 아시안 프리미어

토마토는 어떻게 우리의 시간 감각을 바꾸는 걸까? SF와 다큐멘터리의 경계에서 온실 산업의 인공조명을 추적한다. 식물 생장용 조명이 인간의 리듬과 시간의 인식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제시하고, 농업용 빛 오염 사례를 통해 자연을 과소비하고 통제하려는 인간의 시도가 초래한 의도치 않은 결과에 대해 질문한다.



다나 멜라버 Dana MELAVER

베를린에 기반을 둔 영화감독이자 비주얼 아티스트. 과학과 기술에 관심을 두고, 발견에서 비롯한 철학적 의미를 탐구한다. 다수의 작품이 뉴욕, 중국, 베를린에서 소개되었다.

톰 클라우돈 Tom CLAUDON

베를린에 기반을 둔 영화감독이자 뮤지션. 독일 방송국에서 4년간 음향, 촬영 스태프로 일했다. 감독 다나 멜라버를 만나 〈잠들지 않는 새들〉을 만들었다.

정원 영화들
GARDEN PIECES

M1: 10. 22. SUN 15:10

- 마거릿 테이트
- 영국
- 1998
- 12분
- 실험영화

정원을 주제로 대조적인 분위기로 담아낸 3부작.
마거릿 테이트의 생동감 넘치는 실사와 손으로 그려낸 정원의 초상이다.

마거릿 테이트 Margaret TAIT
스코틀랜드를 대표하는 시인이자 영화 연출가이다. 1918년 스코틀랜드 오크니 출생으로 1980년대 오크니의 풍경과 문화에 영감을 받아 일련의 영화 작품을 만들었고 여러 권의 책을 출판하였다. 유일한 장편 영화인 〈블루 블랙 퍼머넌트〉(1992)는 여성감독에 의해 만들어진 최초의 스코틀랜드 장편영화이다.

트리라인
TREELINE

M3: 10. 22. SUN 17:00

- 루스 매클레넌
- 영국
- 2021
- 22분
- 실험영화
- 아시안 프리미어

전 세계 사람들이 보내온 수백 시간에 달하는 숲의 푸티지가 담겨있다.

루스 매클레넌 Ruth MACLENNAN

영화감독이자 예술가. 최근 작품을 통해 기후 비상과 지역, 공간 사이 되돌릴 수 없는 변화를 탐구한다. 이전 작품은 BFI 런던 영화제, 에딘버러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프로그램 이벤트
PROGRAM EVENT

동물의 집은 어디인가: 시민 영상 공모전

동물들에게는 저마다의 '집'이 있다. 동물과 인간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집, 울창한 숲속, 재개발로 허물어지는 건물까지. '집'은 본연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지만, 우리 주변 동물의 집은 어떨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모든 동물의 집에 관한 시민 영상을 모았다.

쟁점포럼
교차하는 타자성: 동물의 위치

타자, 타자성 그리고 타자성 간의 교차에 대한 논의가 치열한 가운데 이러한 '교차성' 담론에 동물권, 비인간 동물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본다. 교차성의 범주 안에 동물과 동물권의 위치, 인간동물-비인간동물 사이의 위계와 연계성에 대해 묻는다. 페미니즘, 퀴어, 장애인권, 난민, 생태 등 다양한 영역들과 동물권을 교차하며 사유하고 운동해 온 연구자, 활동가들이 참여한다.

일시·장소	2023. 10. 22. 일 16:40 메가박스 홍대 2관
사회	김현미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발표 1	「에코페미니즘에서 비건 논쟁: 존재론적 비거니즘에서 생태적 돌봄으로」 황주영 서울시립대학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페미니즘학교 팀장
발표 2	「재난민화되는 동물들: 포스트휴먼 시대의 동물 타자」 송다금 숙명여자대학교 책임연구원, 연세대학교 강사
토론	홍은전 작가, 기록활동가 루인 트랜스/젠더/퀴어연구소 선임연구원

포커스포럼

탈출하고 표류하는 동물들: 국내 동물원의 현재와 미래

사자 사순이와 퓨마 뽀롱이는 그들의 공간에서 열린 문으로 걸어 나왔다가 사살당했다. 얼룩말 세로는 부서진 울타리에서 나와 서울 도심을 표류하다가 포획당했다. 국내 동물원 시설의 동물 복지 문제는 국영과 민영을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 이외에도 정부가 파악조차 못 하는 야생동물시설이 산재해 있다. 탈출하고 표류하는 동물을 포획하고 사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지금의 국내 동물원의 실태를 살펴보고, 올해 12월부터 개정되는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동물법과 해외자료를 통해 동물원의 미래에 대해 토론한다.

일시·장소	2023. 10. 22. 일 14:30 메가박스 홍대 2관
사회	남종영 한겨레 기후변화팀 기자
발표	「한국 동물원의 과거, 현재, 미래」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토론 1	「동물원의 역사와 현재 동물원의 역할」 김규태 경북대학교 교수
토론 2	「당장 동물원을 없앨 수 없다면 동물원은 어떤 곳이 돼야 할까?」 김정호 청주동물원 수의사
토론 3	「국내 생추어리 조성을 위한 노력」 최인수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

SAFF 토크 1

동물의 집은 어디인가: 재난과 동물구조

전쟁과 같은 비상사태에서 동물의 집은 어디인가. 지금 인간의 세상에서 동물은 언제나 잠정적인 비상사태인 것이 아닐까. 〈니카를 찾아서〉 스타니슬라프 카프랄로프 감독과 서울동물영화제 집행위원장 임순례 감독이대화한다.

일시·장소	2023. 10. 20. 금 19:40 〈니카를 찾아서〉상영 후 메가박스 홍대 1관
모더레이터	임순례 집행위원장
게스트	스타니슬라프 카프랄로프 감독

SAFF 토크 2

대안적 공존을 향한 변화: 생추어리

〈라우디 걸〉의 르네는 남편의 목장을 생추어리로 바꾸고, 같은 고민을 하는 목장주들에게 친환경적이고 동물복지를 위한 목축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잡식가족의 딜레마〉 황윤 감독은 구제역 살처분 이후 식탁에 올라오던 돼지고기에 대해, 그리고 돼지의 삶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다. 〈라우디 걸〉 제이슨 골드먼 감독, 〈잡식가족의 딜레마〉 황윤 감독,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대표, 조현정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기획팀장이 함께 축산업의 변화와 대안적 공존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한다.

일시·장소 2023. 10. 21. 토 17:20
〈잡식가족의 딜레마〉 상영 후
메가박스 홍대 1관

모더레이터 조현정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기획팀 팀장

게스트 제이슨 골드먼 감독
황윤 감독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대표

SAFF 토크 3

인간의 극장, 동물의 스크린: 스크린 위 동물의 현현

상업영화와 예술영화를 가로질러 동물을 비롯한 비인간 존재들이 빈번하게 프레임에 등장하고 영화의 시간을 점유하며 시네마의 풍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김혜리 씨네21 편집위원과 함께 '인간의 극장, 동물의 스크린'의 상영작들의 동물들, 동물들이 보여지는 방식, 동물과 인간이 맺고 있는 관계, 그리고 이것들을 영화가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일시·장소 2023. 10. 22. 일 12:00 〈쇼잉 업〉 상영 후
메가박스 홍대 1관

모더레이터 황미요조 프로그래머

게스트 김혜리 씨네21 편집위원

SAFF 토크 4

장소에 존재하기: 마거릿 테이트의 영화 정원

마거릿 테이트는 스코틀랜드 최초의 여성 장편영화 감독이자 여전히 가장 수수께끼 같은 영화감독 겸 시인이다. 신은실 영화평론가가 마거릿 테이트 영화의 양과 초원, 정원과 나무 집과 도로, 하늘과 바다에 대해, 시적인 영화만들기에 대해 이야기한다.

일시·장소 2023. 10. 22. 일 15:10
〈정원 영화들〉 + 〈장소에 존재하기 — 마거릿 테이트의 초상〉 상영 후
메가박스 홍대 1관

모더레이터 황미요조 프로그래머

게스트 신은실 영화평론가

SAFF 토크 5

식물의 낮과 밤: 녹록한 낙관

식물의 마음은 어떨까. 〈라이트 니즈〉의 감독은 식물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복화술사'가 되기를 시도하기도 한다. 최근 『식물적 낙관』(2023)을 출판한 김금희 소설가가 김현민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 식물의 마음, 그리고 식물하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한다.

일시·장소 2023. 10. 22. 일 19:20
〈라이트 니즈〉 상영 후
메가박스 홍대 2관
* RV 상영 후 이어서 진행됩니다.

모더레이터 김현민 영화 저널리스트

게스트 김금희 소설가

반려견과 함께, SAFF 피크닉

반려견과 함께 영화를 감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서울동물영화제 사전 이벤트이다.

일시·장소 2023년 10월 3일(화) 15:30–19:30
문화비축기지 T2 야외무대

프로그램

사전행사 / 팝업 부스	
오프닝	사회자: 이창호 코미디언
SAFF 피크닉 토크	김이나 작사가, 이기우 배우
축하공연	이설아 + 반려견 설탕이, 공중그늘
무대인사	이옥섭 감독, 황미요조 프로그래머
영화 상영	〈세 마리〉, 〈각자의 바다로〉 이옥섭 감독

동물권행동 카라

인권을 넘어 생명권으로!
2002년 4월 15일, '아름품'을 설립하였습니다. 2006년 KARA(Korea Animal Rights Advocates)란 새 이름으로 비영리 시민단체로 등록하고, 2010년 3월에는 농림부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여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동물권 활동의 발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비전

동물이 인간의 일방적인 착취와 이용에서 벗어나 존엄한 생명으로서 그들 본연의 삶을 영위하고, 모든 생명이 균형과 조화 속에 공존하는 세상을 지향한다.

미션

시민들과의 지식과 배움의 공유를 통해 동물에 대한 이해와 공감, 참여를 확대하며 폭넓은 연구와 다양한 실천을 통해 문화와 인식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고, 이어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 동물복지를 증진한다.

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는 2002년 시작되어 동물과의 평화로운 공존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입양확산과 유기근절을 통해 올바른 반려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에서부터, 산업계의 반생명적인 동물 착취 및 야생동물 위협에 저항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카라는 위기에 처한 동물들의 복지와 권리를 대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카라는 특히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통해 다른 동물과의 공생을 위한 사회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동물권 교육 및 캠페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영화제 스태프
FESTIVAL STAFFS

조직위원장
전진경

집행위원장
임순례

집행위원
구정아, 권미경,
김이나, 김효진,
박승호, 황미요조,
황윤

프로그래머
황미요조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임유빈, 황연정

운영
권나미, 김명혜, 단단

이벤트
박선미, 이담인,
한희진

홍보
김나연, 백수진,
이난수, 장윤정

협찬
김계옥

포커스 포럼
조현정, 최인수

기술상영
진미디어:
김종헌, 류민영,
문희상, 박종효,
박찬진, 배선희,
손정예, 양희찬,
오예리, 이진희,
최수훈

자막
21세기 자막단:
고솔, 김미라,
김빈, 김영지,
김혜진, 박서진,
오혜선, 이선화

온라인 상영관
(주)퍼플레이컴퍼니:
박유영, 우지영

영화제 아이덴티티
- **아트디렉션·디자인**
  Studio fnt: 이재민, 정다솜
- **일러스트레이션**
  윤예지
- **트레일러 디자인**
  Delpic design studio:
  김기태, 이본, 신유미

홈페이지
슬로워크:
석지희, 정지은, 송민아
디메인:
심병찬, 황인성, 김다래,
김정환

동물권행동 카라
- **대표** 전진경
- **사무국장** 소연주
-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
  일동

도움 주신 분들

ACKNOWLEDGEMENTS

강초실버
노정규
양빛나
유다희
전민성
한소이
(주)그린나래 미디어: 박병규, 배국한, 유현택
(주)영화사 하얼빈: 이진숙
(주)미디어나무: 김성환
(주)풀무원: 김효실
(주)프래그: 서준희
꽃사미로: 임은주
닥터 브로너스: 김도연
닥터노아: 송화진, 박인선
리리키친: 이선미
마포문화비축기지: 송형남, 이태원
메가박스: 윤재웅, 이슬기, 이진희, 장세라, 조성호
멜로우매거진: 박조은
박서보재단: 박승호, 이유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이선영, 이정엽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우진솔
서울독립영화제: 박수연
서울특별시: 박진솔
시네마달: 진솔아
아로마티카: 정나은
아영FBC: 은유경, 김윤소
아트나인: 박혜진, 정민경
영화진흥위원회: 이건창, 이인혜
오브젝트: 유세미나, 신지혜
일룸: 한태은, 이승아, 김민송
주한프랑스대사관: 양지영
하나뿐인 지구영상제: 민지홍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전윤하
CJ올리브네트웍스: 김별하, 노소라, 임선우
EBS국제다큐영화제: 김아영, 유동연, 형건
Autour de Minuit: Miguel ESPAÑOL, CELIMÉNDIZ
FAMU film distribution: Alexandra HRONCOVÁ, Marek KOUTESH
Fishcorb Film: Irene SOMS
Film and Video Umbrella: Katie BYFORD
Gaumont: Louise PARAUT
Impronta Films: Ana FERNANDEZ SAIZ
Lux Distribution: Hanan COUMAL
M&M 인터내셔널: 이마붑
Manifest Pictures: Anaïs COLPIN
Park Circus: Evie KORZEC, Jack BELL
Picfilm: Nicola GENNI, Mattia DE MARCO
Rediance: WANG weiyi, XU Jing
Sideways Film: Kazz BASMA
Syndicado: Jasmina VIGNJEVIC
Underdog Distribution: Giovanni BONZANINO